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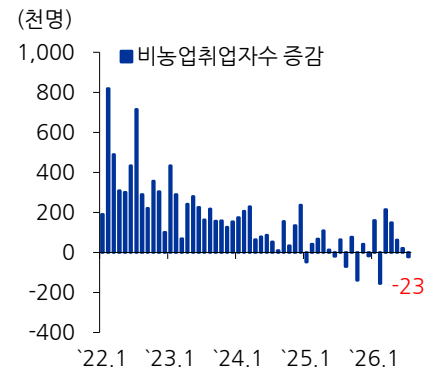
# Global Economy

경제/자산배분 방인성(PhD)  
6145/isbang@eugenefn.com

## 7월 고용: 고용 감소, 실업률도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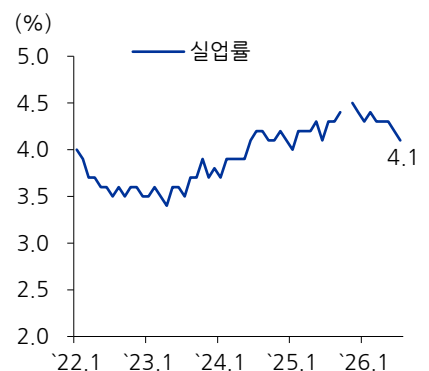
- “ 7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2.3만명 감소하며 시장 예상(+8.3만명)을 크게 하회하며 4개월 만의 순감소로 전환됨. 5월(+12.9만→+6.3만)과 6월(+5.7만→+2.0만)도 합계 10.3만명 하향 조정되며, 최근 3개월 평균은 +2.0만명, 12개월 평균은 +3.4만명으로 낮아짐. 지난달 '재가속의 일단락'으로 봤던 국면이 '완만한 둔화의 재개'로 확인됨.
- “ 실업률은 4.1%로 전월(4.2%) 대비 0.1%p 하락하며 2개월 연속 내림세, 13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함. 다만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하락의 배경은 고용 개선이 아닌 노동 공급 위축임. 경제활동참가율은 61.4%로 5년여 만의 최저로 떨어졌고, 고용률(58.9%)도 동반 하락함(연초 대비 각각 -0.7%p, -0.5%p).
- “ 가계조사 세부도 개선과 거리가 있음. 일시해고자가 15.3만명 급증한 92.1만명을 기록했고, 장기실업자(27주 이상) 비중은 25.5%에 달함.
- “ 업종별로는 정부(-5.3만명)가 감소를 주도했으며, 지방정부 교육만 -5.0만명임. 월드컵 종료의 반작용으로 호텔·레저(-4.0만명)도 큰 폭 감소했고, 소매(-1.9만명)와 금융(-1.4만명)도 부진함. 반면 민간 부문은 +3.0만명 증가해 건설·헬스케어(각 +2.2만명)가 이를 지탱했으나, 헬스케어 증가폭은 12개월 평균(+3.6만명)을 하회함.
- “ 시간당 임금은 37.62달러로 전월 대비 2센트(+0.1%) 상승에 그침. 전년 동월 대비로는 +3.2%로 예상(+3.5%)을 하회하며 2021년 5월 이후 최저임. 주당 근로시간은 34.3시간으로 변동 없음. 끈적하던 임금 상승 압력이 뚜렷하게 완화됨. 6월 CPI(+3.5%) 감안 시 실질임금은 마이너스임.
- “ 7월 FOMC(7/28~29일)에서 기준금리를 3.50~3.75%로 5회 연속 동결했으나, 3명 인상 의견으로 반대표를 던짐. 6월 CPI가 3.5%로 5개월 만에 처음 둔화됐음에도, 무게중심은 9월 인상 쪽으로 기울던 상황이었음.
- “ 이번 고용 부진으로 흐름이 다소 반전됨. 9월 인상 확률은 발표 전 57%에서 44%로 후퇴했고(CME FedWatch 기준), 국채 금리는 하락, S&P500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. 고용·임금 동반 둔화로 연준의 인상 명분은 상당폭 약화됨. 다만 고용 부진이 깊어지면 인하 기대보다 경기 둔화 우려가 시장을 지배할 수 있음.
- “ 8/12일 발표되는 7월 CPI에 대한 중요도가 크게 상승. 물가 압력이 재확인되면 긴축 가능성이 높아지나, 반대로 '동결 지속'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판단됨.

### 비농업취업자수 2.3만명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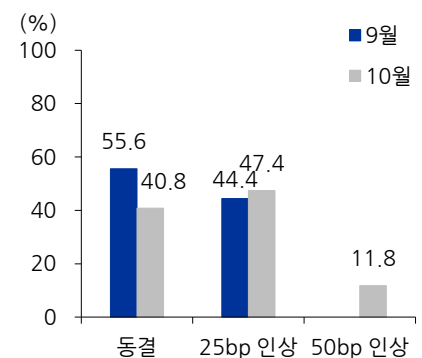
자료: BEA, 유진투자증권

### 실업률은 4.1%로 하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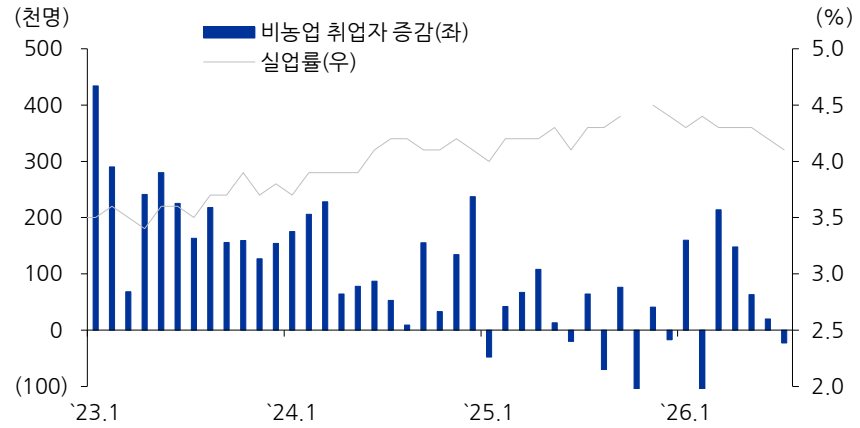
자료: BEA, 유진투자증권

### 9월 인상 가능성은 44%로 낮아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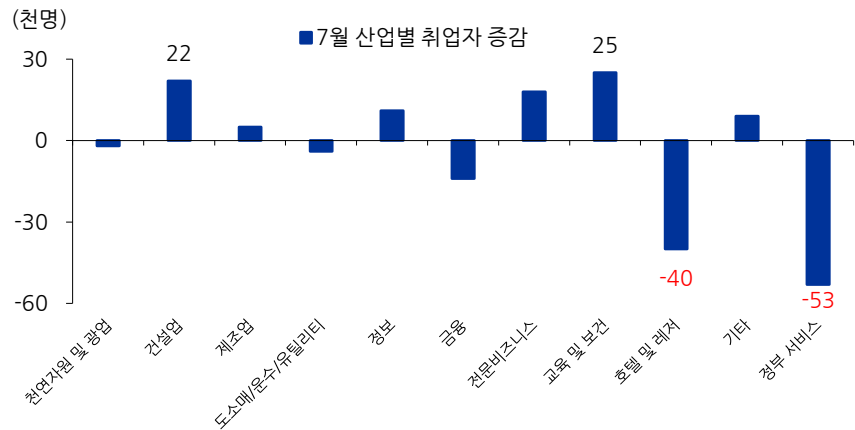
자료: CME FedWatch, 유진투자증권

### 비농업 부문 취업자는 2.3 만명 감소, 실업률은 4.1%로 하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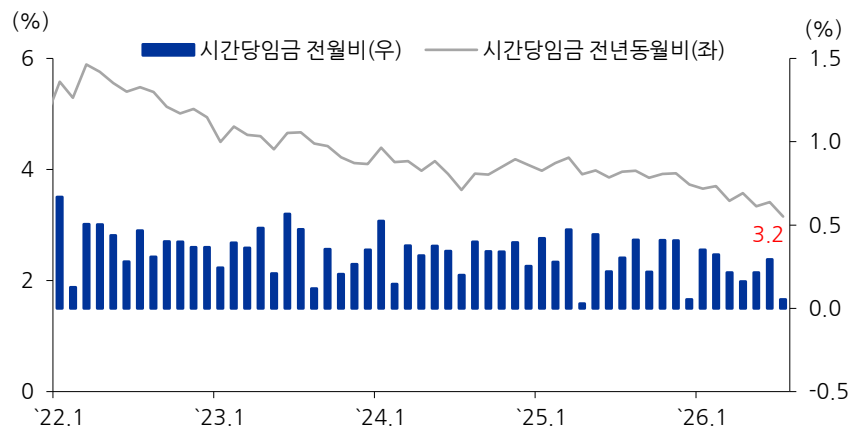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### 정부·호텔레저가 감소 주도, 건설·헬스케어만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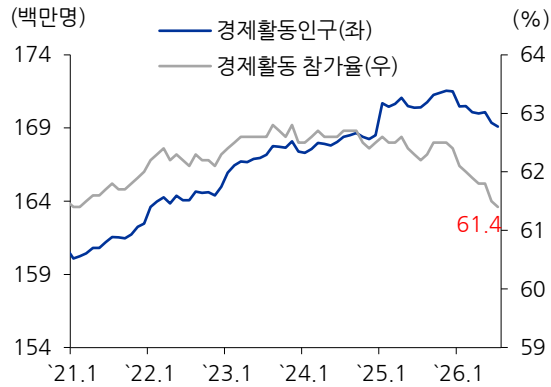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### 시간당 임금은 +3.2%yoy로 2021년 5월 이후 최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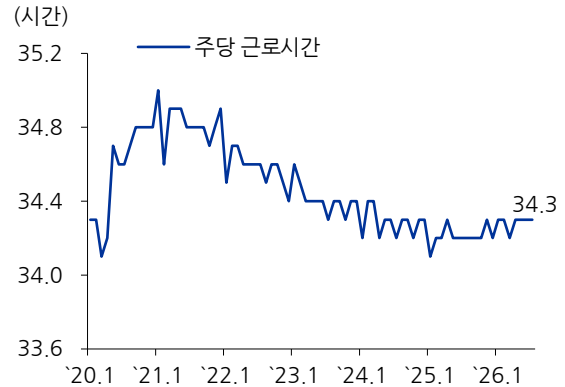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## 경제활동참가율 61.4%로 하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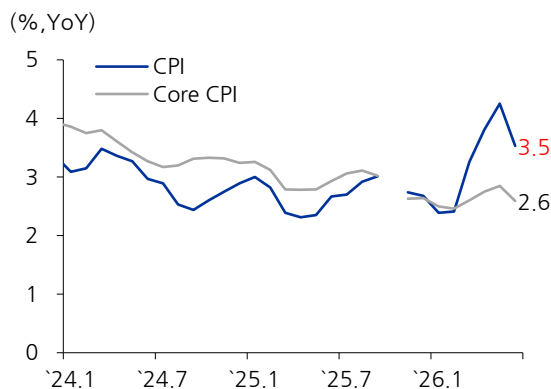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## 주당 근로시간은 34.3 시간으로 변동 없음


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## 헤드라인 물가는 +3.5%yoy로 5개월 만에 둔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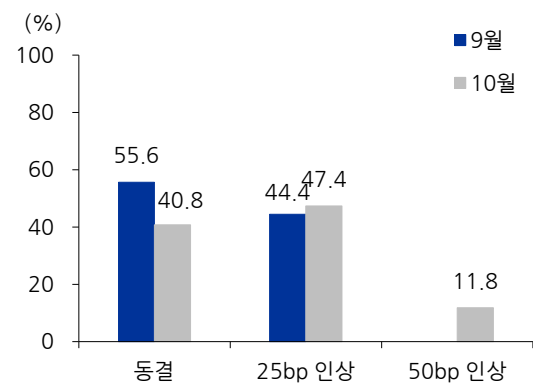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유진투자증권

## 휘발유 소매가격은 4.21 달러까지 상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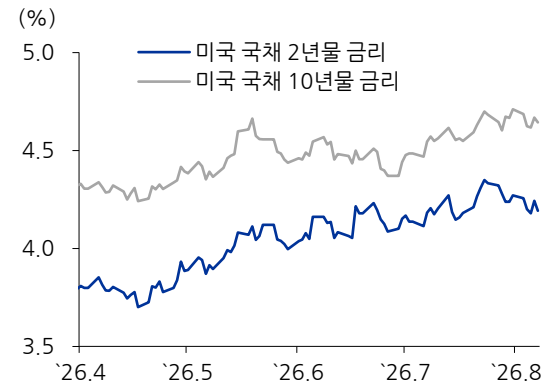
자료: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## 9월 금리 인상 가능성 후퇴



자료: CME FedWatch, 유진투자증권

## 美 2년물 국채금리는 4.193%로 하락



자료: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#### Compliance Notice

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 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

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

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

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

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

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

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

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